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14.(수) 14:00 배포 2026. 1. 14.(수) 11:00

구윤철 부총리,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14일(수)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하였습니다.

<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개요 >

* 일시 : 2025. 1. 14(수) 14:00 ~ 17:30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관 : 한국금융학회, 한국경제학회, 외환시장운영협의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이태수 (taesulee@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부총리 축사

축 사

2026. 1. 14.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구 윤 철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입니다.

먼저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님,
신관호 한국금융학회 회장님,
유경운 외환시장운영협의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한 걸음으로 함께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직접 참석해서 외환시장 정책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미국 G7회의 출장 등 불가피한 일정으로
영상 축사를 하게 되어 무척 아쉽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계성이 크게 높아졌고,
지경학(geoeconomics) 시대의 부활로 평가받는 등
국제 이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학계와 시장, 그리고 정부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국제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오늘 심포지엄이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세부 주제에 대한 소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우리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초혁신경제, AI 대전환 등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지나친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단기적 시장대응 및 수급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아주 중요한 외환시장 참가자입니다.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수 편입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본과 외환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로드맵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시장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은
기존의 금융과 외환거래 방식을 넘어
거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에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자본 유출입 관리, 금융안정, 이용자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본 유출입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외환시장은
복합적인 도전요인들을 새롭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여러분들의 뛰어난 집단지성이 빛을 발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루어진 생산적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